

“IB 프로그램 운영 희망학교 지원”

서거석 교육감, 남원서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 학교급식 개선·디지털 교육 등 논의

서거석 교육감이 19일 남원 지역 학부모·교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관내 학부모와 교직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공감토크에서 참석자들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외국인 유학생 확대 △학교급식 개선 △늘봄학교 △특수교육 확대 △디지털 교육 △IB교육 프로그램 등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놓고 대화를 나눴다.

이후 남원월라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서 교육감은 이날 공감토크에서 도내 최초로 IB 후보학교로 승인된 용북중학교를 언급하며 “IB 프로그램 운영 희망학교에 대해서는 최종 단계인 월드스쿨 인증을 받을 때까지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한 IB 인증교사 양성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지난 19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지역 학부모와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과 함께하는 공감토크’가 열렸다.

도내 교사들, 고교학점제 전문가로 키운다

전북자치도교육청, 오늘부터 3일간 도내 일반고 교사 45명 대상 직무연수(심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2~24일 3일간 도내 일반고 교사 45명을 대상으로 전주대학교 평화홀에서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심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무연수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진로·학습 설계 지도 등 교사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기본과정은 6월

28일부터 7월 21일까지 원격으로 30차 시를 개별 이수했다. 이어 심화과정은 △미래 교육과 고교학점제 △2025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실제 △진로·학습 설계 지도 사례 △고교학점제와 최소성취기준 보장 지도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과 대학 진학 △분임별 단위 학교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실습 등 18차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분임별 활동은 고교학점제 현장지원단 소속 교사를 중심으로 9개

의 소그룹으로 분반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사례를 분석하고, 2025학년도 교육과정 편성 실습을 진행한 뒤 분임별로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장은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설계 역량을 강화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는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이해력 높인다

전북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업무담당자 교육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9일 전북 교육인권센터에서 교육지원청의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른 새롭게 업무를 맡은 담당자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더불어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및 인건비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예·결산 운영,

지출, 차입금, 적립금 등 사립유치원 재정 운영에 관한 기준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유아학비, 무상교육비, 교사처우개선비 등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각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상반기 진행된 사립유치원 교육비 및 인건비 현장 지도 점검에 관한 공통 지적 사항을 공유하며,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책무성을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창업지원단

예비창업자 창업캠프

전북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손정민)은 지난 18~19일 양일 간 군산에 이본호텔에서 호남권역 내 예비창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창업캠프를 열었다고 밝혔다.

2024 창업중심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캠프는 ‘TJM(Tech item-idea Make) 기업가 정신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으로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이 함께 유망 아이디어를 보유한 25명의 호남권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강의와 멘토링 등이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전국 대학생 모의유엔회의의 ‘최우수’

전북대 정치외교학과 고성훈·김훈 학생, 2위위원회서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최근 가천대학교에서 열린 ‘제29회 전국대학생 모의유엔회의’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유엔 한국협회가 주최하고 외교부 후원으로 열린 이 대회는 학생들이 실제 유엔총회에 개진, 활동하는 외교관처럼 각 위원회별로 국제사회 현안을 놓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29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1위위원회서 ‘기후변화와 국제안보’, 2위위원회에서는 ‘글로벌 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3위위원회에서는 ‘사이버 공간 내 도전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유엔의 역할’을 의제로 30여 대학 300여 명의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자웅을 겨뤘다.

이에 전북대에서는 정치외교학과 권재범 교수의 지도를 받아 고성

훈 학생 등이 대표단 및 옵서버로 참여했다. 특히 학생들은 2위위원회에서 에티오피아와 미국 대표단을, 3위위원회에서 가나 대표단을 맡아 각국의 의견을 대표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위기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이들 중 2위위원회 에티오피아 대표단 고성훈, 김훈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성훈 학생(정치외교학과 2학년)은 “이번 모의유엔에서 보건위기를 앞으로 국제사회가 헤쳐나가야 할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다른 학교 학생들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며 “30개가 넘는 2위위원회에 참가한 팀들 중 전북대를 대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해 영광”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지역 8개 고전서사의 재발견

전북대 이야기연구소, ‘전대지24’ 통해... 10월부터 강좌 진행

전북대학교 이야기연구소(소장 김기종)가 ‘전대지24’를 통해 전북의 8개 고전서사 재발견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전북대 이야기연구소 교수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연구성과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려는 목적이다. 이를 줄여 전대지(전통성·대중성·지역성)라고 명명했다.

오는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는 강좌는 ‘전북의 8개 고전서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정순희·김도형 교수, 이종주 명예교수, 이정훈·오정미 학술연구,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유정열 박

사가 참여해 전북의 고전서사를 다룬 예정이다.

특히 총 8개 강좌에서는 건지산과 전주, 시문을 통해 본 풍요의 변산반도, 벽골제와 농민의 삶, 최치원설화의 전복적 위상, 고전소설의 시대와 남원의 공간성, 순창의 매력 설공찬전, 고문서로 본 장수이야기 등이 펼쳐지며, 마지막으로 새만금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수물과 간척이 고전서사 속에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도 살펴 본다.

김기종 소장은 “전북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선을 고전문학을 통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 강좌를 통해 도내 14개 시군의 고전서사적 면모가 드러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대 이야기연구소(063-219-5684)나 인스타그램(@jnu_storylab)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공고

망 권찬성(1960. 3. 15.생 2024. 4. 10.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유언수사법보좌관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4년3337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사법보좌관 유언수
- ▶피상속인: 망 권찬성(1960. 3. 15.생 2024. 4. 10. 사망)
- ▶최후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낙평장기로 10, 101동 704호 (봉동 광신프로그램스 아파트)
- ▶공고인: 권인선·권지혜·권안나(상속포기) 김숙자(한정승인)
- ▶공고기간: 2024. 7. 22. ~ 2024. 9. 21.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수리일: 2024. 7. 18.
- ▶주소: (청구대리인)정찬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35층(여의도동, 파크원 타워1) 법무법인(유한) 대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